

6공식 강제징집과 그대응책

최근의 남침, 송중호 열사의 분사 사건은 지난 30여년간 독재 정권의 유지기반이 되어왔던 군의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5공때에 구속 대신 강제로 학생들을 징집, 병역의무를 지우는 방법으로 학생운동을 탄압해 왔던 것이 6공화국 들어서는 더욱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병역법을 악용하여 시국관련 구속자들이 출소할 즈음에 징집 명령이 즉시 발부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권력재편기에 장기집권구도 조성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현재 강제징집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104조를 살펴보면 그 파장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위의 법안은 실행 6개월이상이면 무조건 면제가 되던 84년 5월 이전의 상황에서 지금까지 변화해 왔다. 그 변천과정

은 때로는 정권의 속셈에 따라 때로는 민중의 투쟁에 의해 변해왔다. 먼저 84년 5월이후 바뀐 시행령은 집시법 위반자에 한하여 실행 3년이하는 징집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노골적인 탄압의 의도를 드러내었다. 두번째는 88년 8월1일자의 개정안으로, 실행 1년에 집행유예 2년 미만을 선고받은 자도 역시 징집되도록 하였다. 이는 앞의 시행령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투쟁의 산물이었다. 87년 6월 항쟁이후 이루어진 사면조치로 가석방이 된 인사들이 지금까지의 강제징집이 합법의 가면을 쓴 채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이의 개정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감으로써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세번째의 법개정안은 현재 적용되는 시행령으로서 실행 2년 미만인자는 모두 징집되도록 한 89년 3월25일자의 개정시행령이다. 이 법안

의 시행에 있어서 정권의 속셈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같은 실행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도 일반 강력, 폭력범은 출소후 면제가 되는데 반해, 시국관련사

는 저들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시국관련사범의 강제징집뿐 아니라 방위산업체 병역특례 복무자와 ROTC, RNTC 제적자의 강제징집에 대해서도 노동운동과

이 있다. 더욱이 한 특례복무자는 해고통지서를 받기전에 영장을 받는 등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징집이 악용되고 있다. ROTC와 RNTC의 경우

화 투쟁을 전개했던 한국해양대의 경우 이미 63명이 제적되었고 입대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은 사람도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징집대상자의 대다수

9월 출소하고, 11월에는 민정당 중앙 정치연수원 참가자들이 출소하면서 윤석상 이병 후원사업회와 결합하여 모인 (가칭)강제징집 철폐와 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그것이다. "이제까지 분산되어 있던 개인의 노력을 대동적으로 조직화해 내고, 정권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도구로 징집을 이용하는 의도를 폭로, 분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군의 민주화와 평화군축을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하겠지요"라며 준비모임의 향후 역점사업 내용을 밝힌 한 실무자는 "현재 서울, 부산, 경남지역에 결성되어 있는 준비모임은 그동안 전체 실무자 회의, 홍보, 선전 작업등을 통해 지역 조직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강제징집 상담소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강제징집 대상자카드를 접수받고 있으며 선전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강제징집의 문제는 단지 그 자

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강제징집으로 인해 발생된 수많은 의문사, 프락치 강요, 녹화사업 등 정치보복적 탄압들을 가해오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그 배후에 숨어있는 반민주적 군의 실상, 독재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간파해내야 할 것이다. 임의적인 병역법 시행령 개정, 사법부의 의도적인 2년미만의 선고, 일반사범과 시국관련사범과의 편파적인 징집사태등 일련의 과징속의 사실들은 저들이 장기집권 구도 조성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합법을 가장한 채 벌이는 기만극에 다름아님을 인식하여야 하겠다. 이제 일명 6공식 강제징집 반대투쟁의 구호는 단지 징집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부도덕성 폭로, 반독재 투쟁과 함께 군의 민주화, 중립화의 당위성을 선전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송보영 記者)

자본에 잘려진 손가락

첫 출근하는 날이다. 긴장한 탓에 출근시간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출근했다. 처음 본 공장안은 화려한 그 자체였다. 전선이 부죽해서 꺾뺨뺨하고 줄고있는 형광등과 여기저기서 흘러오는 프레스 찍는 소리, 날려져 있는 제품과 빈 상자, 공장 가운데에는 연탄재가 깔려있고 보일러만이 겨울이 갖는 추운 입김을 토해내고 있었다. 공장장과 인사를 하고 노동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였다. 순간 '놀란 가슴은 비통함을 넘어선 연민' 그 자체였다. 프레스공이라는 특수성에 얽매어있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이 땅의 경제부흥 선봉아이라는 노동자의 손가락이 9개 아니 8개였다. 장갑 낀 왼 손가락으로, 이 땅의 경제부흥 선봉아이라는 노동자의 손가락이 9개 아니 8개였다. 장갑 낀 왼

불편함 속에서 그나마 보일러도 제 기능을 못할때는 손가락이 시려워 물건을 제대로 옮길수도 없

짧은 기간동안 뜨거운 동료애 느껴 열악한 작업환경 깨달은 계기

짧은 중지에 형집은 바람부는데로 제자리 움직이고 마치에 눌린 엄지손가락에는 피멍만이 앙상하다. 이렇게 아파하는 것도 순간, 작업장 배치를 받고 일을 시작했

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시간만 리가 엄격했고 자기연장에 대한 애착심과 동료애에 대한 배려가 각별했다. 수시로 감시하러 들르는 시장은 외제시거에 지팡이를 들고 어

짜다 불량품이 나오면 공장장을 시켜 심한 독설을 퍼붓게 한다. 사장이 강조하는것은 단 한가지였다. 작업능률 향상, 불량률조심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항상 참고 견디는 것만은 아니었다. 회사에 출근장이 없을때는 즉구장신설을 요구할줄도 알고 점프전쟁에 대

려 할때 이별주라며 전해준 술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사근 내뿜고 친구는 전화번호와 주소

내가 본 노동자, 아니 내가 사랑하는 노동자는 건강하고 성실했다. 그러기에 나는 우리 형제를

김광석 (국문·2)

땀으로 갠 관념의 벽

이제는 육체의 고달픔을 잊고 어느덧 학교생활에 익숙해졌다. 하루하루 작업장에 나가면 모든 공구가 철인 철공소에서 기름과

고있는 이 나라를 더더욱 민주적이고 자주적이고 통일된 사회로 만들려는 그 신심(信心)을 사랑

왜 이뤄내야 하는가. 그것은 노동자들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들이 또한 이 땅에 살고있는 민중들의 커다란

“올바로 서지않고 세상볼수 없어” 현실근로의 활력소된 공장활동

그러나 공장활동동안 느꼈던 무수한 생각들이 나를 굳건하게 지탱해 줄 것으로 믿는다. 3주간의 체험속에 나를 지탱하는데 큰힘이 되어준 것은 여러 동기와 선배들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다. 이 지면을 통해서 감사드리고자 한다. 가장 큰 성과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민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서 그간 범했던 나의 오류에 대해 깨닫고 점차 고치려고 노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자신이 올바르게 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을 올바르게 볼수 있겠으며 행동할수 있겠는가? 이제 공장활동의 흔적은 오랫동안 책을 보면 시름겨울 정도로 공장활동중에 나빠진 눈에서만이 보인다. 어떤 때는 짜증나고 어떤 때는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결국 나에게 커다란 활력을 주었던 공장활동은 끝났다.

사회의 일원인 우리들은 사회의 대해 직접 느껴보는 것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 본 석
(법과·2)

방중현장 체험기

꿈에 부른 대학입학을 하고 지난 1년, 처음 느껴보는 자유속에서 나는 사회현실을 보게 되었고 고민하게 되었다. 정신없이 지나간 1년, 학생회에서 일하면서도 웬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항상 책속에서만 보아온 사회가 아닌 실제의 사회를 느끼고 싶었다. 겨울방학을 시작하면서 나는 취업을 하기로 했다.

나의 어려움은 직장을 구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거리에 붙은 그 많은 구인광고, 그 속에서 나를 원하는 곳은 몇군데 없었고 그나마도 면접에서 탈락되고 말았다. 이렇게 일주일을 참심은 라면으로 때우며 인생의 노정을 경험하며 삶을 느꼈다.

많은 어려움끝에 입사한 공장은 작고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었다. 입사하면서 예상은 하였지만 작업장의 환경은 하루 12시간 노동에, 날리는 가루를 추운 겨울에 난방기구라고는 겨우 3개

뿐만 연탄난로가 다였다. 이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너무도 힘들어했고 나같이 필요없는 살이 붙은 사람이라고는 없었다. 이러한 12시간 중노동에 해도 그들에

“12시간 노동에 일당 8천원”

사회의 주체될 노동자

민중정당 통한 정치세력화 필요

계 돌아가는 임금은 일당 8천원에 식비 1천원이 고작이었다. 또 세금은 왜 그렇게 많은지 보통 나흘치 정도의 임금이 세금으로 빠져 나갔다. 식사 역시도 조잡하고 영양가 없는 푸성귀뿐인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었다.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자체. 장시간의 노동, 월1회의 휴일(월30일 노동)이 주는 상황속에서 그들은 다른것을 볼 시간적 여유를 가질수는 없었다. 노조운동이란것도 이들 작업장에서는 결성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

있다면 노동운동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 인간적 차원의 호소라도 가능했을 터였다. 노동자들이 민중과 함께 민중정당을 결성하여 정치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이 정치권력을 통해서 경제적 처

지와 사회·정치적 지위를 획득하는 노동해방은 이들에게 사치스러운것일수도 있음을 느껴야 했다.

한달간의 직장생활. 비록 힘들고 피곤해서 출기도 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했지만 역시 나에게 많은것을 남겨 주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의 건강함과 투철한 삶의 진지한 모습들로 남아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노동자의 건강함과 그 진지함을 배우고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진정한 이 사회의 주체로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 옥 수
(법과·2)

로동과 퇴근길의 사람들이 어찌러이 엉켜있다. 집에 돌아와 잠깐 밥을 먹고 생각하는 시간에 오늘 지냈던 일을 생각해 보고 진짜 노동자들의 삶은 무엇이고 그들의 말과 실천속에서 배울점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빠지면 그날 행동했던 모든것들이 부끄러워지곤 갔었다. 꼴통 김과장님, 나에게 언제나 잘해주며 같이 활동했던 총명이형, 이제는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꼴통 김과장님은 언제나 나에게 욕을 하고 꿀밤을 주셨지만 나에게 몇가지 교훈을 행동과 말속에 남기셨다.

바로 자기 말만바 책무에 충실하라는 것과 자기의 연장을 사랑하라는 것. 문학하는 사람은 펜을, 그림그리는 사람은 붓과 먹을, 그리고 바로 우리들은 우리들이 살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년간 나는 무수한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그 3주간이란 짧은 기간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게 했다. 바로 왜 우리들은 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해야 하며 노동해방은

20살 여성을 위한 에티앙 광고페이지 ①

※ 에티앙을 위한 에티앙 에티앙은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속해서 연재할 예정입니다.



20세 여성을 위한 화운데이션, 린제리 - 에티앙

여자가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나이, 스무살 그 감각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에티앙이 태어났습니다. 안전한 레이스와 산뜻한 색상이 스무살의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에티앙. 누구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스무살이 되면 에티앙과 만나세요.



에티앙, 그녀는 누구인가?

- 이름: 에티앙 (Etienne)
- 성 별: 여(F)
- 나이: 18세 ~ 23세
- 취 미: 음악감상, 기차여행
- 음식: 국수보다 라면을 더 좋아한다.
- 성격: 유머가 풍부하고, 밝아늘을 좋아한다.
- 이미지: 예쁘고 아름다운 연인을 상징